

OPP 필름 및 CPP 필름 시장 동향

Market Trend of OPP Film&CPP Film

OPP 필름

OPP 필름은 포장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수요를 늘려가고 있지만 최근들어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유가변동, 환율변동 등 가격변화가 심해 판매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몇 년간 중국과 동남아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 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레진가격의 지속적인 인상과 산업용으로의 이전 등으로 포장용 OPP 업체들이 판매량에 있어서는 지난 2009년과 비슷했지만 금액면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OPP 필름 업계는 생산설비 증설이 없이 신수요처 발굴에 역량을 모았으나 그다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레진가격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실적을 높였지만 실제 생산 판매량을 변동이 없었다.

특히 원화 절상에 다른 수입품 증가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 악화 여파로 산업전반 매출 감소가 업계 수요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업계의 어려움은 2011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레진가격의 폭등으로 필름 생산비용은 높아졌으나 필름 판매가격은 원료 인상만큼

반영되지 않은데다 단가 인하 압력까지 겹쳐 수익성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또한 일본의 지진 여파로 안전물량 확보를 위한 문의는 활발하나 실제 거래는 활발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OPP 필름 업계의 시장변화는 눈에 띄는 것이 없으나 하반기 들어 가격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기능성을 강화하고 친환경에 대한 접목을 연구하면서 개발비 투자가 많이 소요되면서 수익성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도 OPP업계는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OPP 생산업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라인에서 141,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가장 큰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주)삼영화학은 수출 5,300톤, 내수 24,400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보였지만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수익성 면에서는 조금 개선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3개 라인에서 30,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이 가운데 12,000톤을 수출하고 18,000톤을 내수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표 1) OPP 필름 생산판매 현황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대림산업(주)	2	25,000	3,500	19,000
(주)삼영화학	4	35,000	5,300	24,400
울촌화학(주)	2	18,000	1,900	16,200
자강산업(주)	1	9,000	300	8,700
(주)필맥스	3	27,600	6,000	18,000
(주)화승인더스트리	3	30,000	12,000	18,000

이 가운데는 포장용, 섬유용, 콘덴서용, 테이프용, 합성지, 합지용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포장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림산업(주)는 포장용, 인쇄용, 기타 산업용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포장용은 20%대를 보이고 있으며 2개 라인의 생산능력이 25,000톤이다.

25,000톤 가운데 수출은 3,500톤, 내수가 19,000톤으로 2009년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보았을 때 산업용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생산능력을 27,600톤으로 늘린 (주)필맥스는 지난해 생산능력이 24,000톤으로 약간 줄었다. 수출은 6,000톤, 내수 18,000톤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생산제품의 용도별 판매율을 보면 테이프용, 인쇄용, 봉투용, 합지용, 기타의 순으로 나열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촌화학(주)는 2009년과 생산 및 판매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전년과 변함없이 2개 라인에서 18,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 1,900톤, 내수 16,100톤으로 안정된 생산 및 매출을 보이고 있다.

자강산업(주)은 1개 라인에서 9,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인쇄용, 섬유포장용, 합지용, 테이프용, 기타 산업용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포장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은 아직 미미한 편인데 300톤 정도이며 대부분 내수물량으로 8,700톤이다.

(사)한국포장협회 6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OPP필름 업계를 분석해 보면 2009년과 큰 변동없이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 물량을 늘리려는 노력과 내수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더불어 신수요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경기지수의 불투명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돼 판매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CPP 필름

CPP 필름시장 역시 2009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업체별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지난해 식품포장용이 주력이었던 CPP필름이 산업용으로 활용되면서 포장용 필름의 공급 비중이 줄어 가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여기에 가격 인상이 겹쳐 고통을 느끼는 강도가 컸던 한 해였다.

CPP 필름 생산업체는 지난해 PET 필름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급마저 어려움을 겪어 PET 필름을 대체하는 수요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 크지는 않았다.

CPP 필름 생산업체들의 시설투자가 마무리되고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급에는 무리가 없었고 품질 역시 안정화되었지만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급상승하여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다.

올들어 원자재 가격의 인하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가격은 안정세로 들어설 것이 예상되나 일반 식품용 그라비어 포장 시장에서의 물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협회 회원사의 CPP필름 생산 및 공급현황을 보면 14개 라인으로 2009년보다 1개라인이 늘었고 생산능력은 52,500톤으로 2009년보다 5,200톤이 증가했다.

삼민화학공업(주)이 1개라인 증설을 마무리해 3개 라인에서 12,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2009년대비 2,200톤을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판매량도 증가해 수출 1,000톤, 내수 11,000톤으로 늘어나 내수 및 수출 물량이 동시에 늘어났다.

(주)유상도 생산능력을 늘려 지난해보다 1,600톤이 늘어난 10,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시장 확대에 나섰다.

유상은 기존 4개 라인의 생산능력을 2008년 수준으로 올려 지난해 낮추었던 생산능력을 올려 수출을 1,500톤으로, 내수를 8,500톤으로

올려 공급량을 조절했다. 이같이 물량을 높인 것은 식품용 수요가 올라간 것보다는 산업용 소재의 수요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이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주)성일화학은 2009년에 비해 수출물량이 조금 줄어들었다.

성일은 3개라인에서 9,000톤의 변함없는 생산능력을 갖고 있지만 수출물량을 2009년 대비 500톤 줄이고 내수 물량을 500톤 늘리는 물량 조절을 시행했다.

내수물량을 기반으로 운영의 안정을 꾀하고 있는 성일화학은 수출 500톤, 내수 8,500톤을 유지하고 이중 시판 37%, 자체소비 63%의 비율을 나타냈다.

(주)삼영화학은 1개라인 4,200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9년과 큰 변동없이 수출과 내수의 비율이 29%, 71%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외시장과 내수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지속적으로 물량 확대를 하고 있다.

울촌화학(주)은 2009년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내수와 수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개라인에서 9,000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울촌은 수출 600톤, 내수 8,400톤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식품용에서 신산업 소재분야로 물량을 확대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주)필맥스는 2009년 대비 생산능력을 9,000톤에서 8,400톤으로 낮춰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는 수출과 내수에서 약간 줄어든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수출은 2009년에 비해 400톤, 내수는 200톤 줄어든 7,000톤으로 변동폭은 작다.

(표 2) CPP 필름생산 판매 현황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삼민화학공업(주)	3	12,000	1,000	11,000
(주)삼영화학	1	4,200	1,200	3,000
(주)성일화학	3	9,000	500	8,500
(주)유상	4	10,000	1,500	8,500
울촌화학(주)	1	9,000	600	8,400
(주)필맥스	2	8,400	1,400	7,000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입제품의 증가와 신규 업체의 움직임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CPP 필름 생산업체들은 산업용 소재 시장확대에 기대를 걸었으나 전자부품소재에 적용되는 CPP 필름이 상반기 말부터 LCD-LED 시장의 악화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식품용으로의 판매를 늘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최근 고물가에 따른 경기회복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PET 필름도 가격이 안정화되고 신수요 창출이 어려워 올해에도 CPP 필름 시장은 냉각기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은 식품용 포장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의 인하로 안정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포장재 외의 식품제조비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판매시장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포장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부터 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부품소재 보호용 시장은 올해 하반기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며 CPP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매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업체들은 중국, 일본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 물량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신제품 개발을 통한 수요처 늘리기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화 절상에 따른 수입품이 증가한다면 앞으로 원료가 상승이 동반되어 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된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어려움이 지속되었던 필름 생산업계는 올해에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수요처 확대, 수출물량을 늘리는 판매전략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다. [KOL]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